

고지도에 표현된 아시아

박선영(朴宣暎)

고지도는 '이미지와 텍스트'로 표현된 '역사지리서'라고 말할 수 있다. 고지도를 제작했을 당시의 장소와 영역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에서 담론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고지도를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고지도에 표현된 지역에 대한 지명, 경계 등 상세한 정보들이 과거 지역의 역사지리정보환경을 파악하고 복원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17세기 예수회 신부들이 작성한 『직방외기(職方外紀)』 「만국전도(萬國全圖)」에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며, 중국, 타타르, 중앙아시아 회교도 지역, 인도, 파키스탄, 페르시아, 스리랑카,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등 백여 국이 넘게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와같이 본 연구는 세계 여러 기관(영국, 프랑스, 미국 등)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 중에 아시아가 표현된 지도를 조사·수집·정리하고 이를 목록화하고, 아시아의 영역과 경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서양고지도와 동양고지도에 표현된 아시아 영역의 표현 차이와 고지도의 제작 시기에 따른 영역의 변천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역사지리 전공으로 학사, 석사 과정을 거쳐 한국근대지형도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역사지리 관련 사업에서 전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을 경험하였다. 특히 한국과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지리정보DB를 구축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수행한 연구사업은 '고지도와 역사지도 융복합 서비스 구축', '규장각 역사지리정보 시범제작 및 서비스', '역사지리정보DB 구축사업', '한국근대지리정보DB 구축사업', '고려-조선 변경지명DB구축 및 전자지도제작' 등이 있다. 논저로는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장 현황과 『조선지형도』(제2차지형도)의 특징」, 「메가아시아 탐색을 위한 새로운 양적 지역연구방법론의 필요성과 가능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고문헌 재해제 필요성 고찰」, 등이 있다. 현재는 데이터 스토리텔링 클러스터팀에 소속되어 고지도와 아시아 아틀라스 제작에 관한 연구 아젠다를 수행하고 있다.

일시: 2021년 12월 7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210호)